

2019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계획서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2019년 11월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2019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계획서

기 관 명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사 업 명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지역문화를 반영한 문화다양성 스토리 발굴에 따른 인식·확산 매개체 필요

가. 2015-19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을 통하여 종로지역을 중심으로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는 전통생활문화 분야 장인들의 손의 기억을 탐구·수집하여 단절위기에 처한 전통생활문화기술(표구-장황, 바느질-침선)을 기록하고 미래세대와의 연결지점을 발굴하였음

※ 표구의 기억, 손의 기억(다큐&도록), 침선의 기록 손의 기억(침선장 구술·채록 스토리북), 침선관련 희곡 3편 개발

나. 전통생활문화 가치를 중심으로 소수문화, 하위문화, 비주류 문화를 포함하는 다양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담은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인식·확산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을 접목한 콘텐츠개발이 필요

다. 2017년부터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개최로 사업방향 확정

2. 지역의 문화특수성과 강점을 반영한 문화예술분야 매개체 활용

가. 종로구는 연극과 공연의 메카인 “대학로문화지구”가 있음.

※ 대학로문화지구(2004.5.8. 지정)

－ 공연장 140개소, 극단 71개, 예술관련대학 7개, 연극관련 협회 10개

나. 종로구에 소재하는 대학로에는 많은 공연장과 극단 등 있는 연극인의 활동 본거지로 대한민국 공연계의 산실임. 따라서 우리 지역의 문화특수성과 강점을 가진 문화예술분야의 매개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다. 대중적인 인식·파급력이 큰 공연 특성상 연극(공연) 예술가들의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도 절대적으로 필요함.

-예술가(연극)들의 문화다양성 인식 교육과 더불어 문화다양성을 내포한 연극을 제작하도록 유도하는 노력

-연극분야는 공연예술의 근본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가진 연극인들이 영화, TV, 뮤지컬 등의 분야로 진출할 시 확산 가능성이 큼

라. 연극은 단순한 오락도 영리를 얻기 위한 흥행도 아니며 사회의 반영인 동시에 자기표현의 한 방식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추구이기도 하며, 시민사회의 서민을 위한 오락으로서, 나아가 인생탐구의 장과 사회개혁에 대한 각성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맡아 온 바, 연극은 문화다양성 가치의 인식·확산에 크게 기여할 매개체임.

마. 2018년부터 지역문화예술단체와 협업으로 문화다양성 영화의 날 프로그램 운영, 종로문화다양성플랫폼 등 대중매체 연계 확산사업 발굴

지역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다양성 스토리 발굴



지역의 문화특수성과 강점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가치 인식·확산 매개체 필요



종로구 소재 대학로 문화지구의 연극 활용
(연극의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일반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문화다양성 가치의 인식·확산
다양한 매체(영화, TV, 뮤지컬)로의 확장도 가능

II. 사업목표

1. 지역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다양성 스토리 지속적 발굴

가. 2015~2018년간 시행한 전통생활문화장인들의 문화다양성 가치 스토리 발굴을 넘어 다양한 소수문화, 하위문화들의 문화다양성 가치 스토리 발굴 확대

2. 지역의 문화특수성과 강점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가치 인식·확산 문화콘텐츠 개발

가. 대학로 문화지구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종로문화다양성 연극제 개최

나. 다양한 소수문화들의 문화다양성 스토리를 공연 콘텐츠화 한 종로문화다양성 연극제 추진

다. 단순한 연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 연극과 지역축제라는 형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다양성 가치의 인식 확산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축제로 성장

3. 지속적인 문화다양성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가. 대학로 문화지구내 문화예술단체와 협력네트워크 강화

-한국연극협회, 한국프로듀서협회, 한국연출가협회, 한국소극장협회 등

나. 재단과 인접한 경희궁길 독립영화, 출판, 음악 장르 예술단체들과 협업으로 대중매체 연계 확산 프로그램 개발

III. 기대효과

1. 전통·지역·소수·비주류문화와 공연예술분야 접목을 통하여,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일반대중 및 미래세대와의 공감대 확산

-지역·전통문화, 소수문화, 비주류 문화 등과의 공존·상생을 위해 연극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문화다양성 가치의 인식개선·확산

2. 지역의 문화특수성과 강점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사업 모델 정립

-종로에는 연극의 메카인 대학로 문화지구 있다는 특수성과 강점이 있어, 이들과의 돈독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문화다양성 사업 진행

-연극이라는 대중예술분야를 접목하여 일반대중들에게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에 크게 기여

-또한 연극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연극인들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각인되어 이들이 각종 대중문화콘텐츠를 제작시에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염두하게 되어 대중문화콘텐츠를 통한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에 기여 (문화다양성 가치확산 매개자로서 활동)

IV. 사업 추진체계

1.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도 및 각 주체별 역할

구분	주체		역할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종로문화재단	·문화기획팀	기획 및 운영 총괄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운영위원회	문화다양성 연극제 운영
종로문화다양성 운영위원회 구성	대학로 문화지구	·종로무지개다리사업 전문가 네트워크 가동	종로문화 다양성 연극제 운영위원
	종로문화예술인 네트워크		
	월간 한국연극	·편집주간 및 편집위원	
	문화다양성 사업 컨설턴트	·해당전문가1인	

2. 추진 방법

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콘텐츠 발굴

- 1)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소통채널 개발
- 2) 연극제를 통한 문화다양성 콘텐츠 발굴

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콘텐츠 보급 및 유통

- 1) 종로문화다양성 연극제 개최
- 2) 순회공연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작품 유통채널 확산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에 기여
- 3) 문화다양성 이해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 기획기사 발굴 및 배포
- 4) 예술인을 위한 문화다양성 워크숍 개최
- 5) 문화다양성 확산프로그램으로 문화다양성 영화의 날 운영
 - 지역예술단체와 협업으로 문화다양성 영화의 날 운영 추후 문화다양성필름
페스티벌 운영계획 수립 예정

V. 중장기 사업계획 (2019년~2021년 사업개요)

구분		2019	2020	2021
종로 문화 다양성 위원회 운영	기 획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운영위원회 운영		
	교 육	연극인(예술인)을 위한 문화다양성 워크숍 운영		
	홍 보	종로 문화다양성연극제 사업설명회 운영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대중매체 홍보 프로그램 연계		
		미디어매체 홍보 연계사업추진 (문화다양성 관련 홍보콘텐츠 다중 배포)	문화다양성연극제 매체중계사업 추진 (핵심홍보매체연계)	문화다양성 콘텐츠 아카이브운영사업 추진 (포털매체 등 연계)
문화 다양성 연극제 운영	연 극 제	2nd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3rd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4rd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중심지역]대학로		
		[기획] 무지개pick3편 [연계] 종로pick4편	[기획] 무지개choice3편 [초대] 무지개pick4편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국내/해외연극제와 교류사업추진
	대 중 매 체 연 계 확 산 사 업	종로문화다양성플랫폼		
		[SNS기반] 종로문화다양성플랫폼 가동	종로문화다양성플랫폼 채널다양화 및 활성화	
		문화다양성+		
		지역연극제 연계	지역연극제 등 다양성콘텐츠 발굴 및 홍보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예술단체 협력 사업으로 문화다양성영화제 운영		문화다양성 필름페스티벌 운영

VI. 2019년 무지개다리 사업 세부계획안

1.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운영위원회 구성

가.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정

1)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협력위원회 구성

－ 위원장: 김미혜(한양대 연극영화과 교수)

－ 협력위원

김인준(국민대 연극영화과)

배인석(문화기획자)

구태환(연극연출가)

김준희(한양대 연극영화과)

송경희(무지개다리사업 컨설턴트)

이은경(무지개다리사업 컨설턴트, 연극평론가)

나. 운영위원회 활동

1)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참여단체 심의 및 모니터

2) 종로문화다양성 콘텐츠 발굴 사업 자문

3) 종로문화다양성 교육, 홍보 프로그램 기획 등 지원

다. 연극인(예술인)을 위한 문화다양성 워크숍 운영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작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2) 문화다양성 관련 전문가 초빙

3) 참여대상 : 연극예술인(극작가, 연출가, 제작자, 배우, 무대스태프 등)

4) 운영기간 : 2019.10월 예정

2. 종로문화다양성 연극제 운영

가. 종로문화다양성 연극제 개요

1) 추진일정 : 2019년 11월5일(화) ~ 12월1일(일)

2) 장소 : 종로구 대학로(소극장)

3) 선정팀 수 : 3팀(무지개 픽)

－ 공모를 통해 문화다양성 연극으로 선정된 작품 3편 선정, 작품제작비 지원

※작품제작비에 공연보험료 포함, 공연참여자 보험 필수

4) 작품선정 : 기획공연은 공모를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우수작품 선정

※ 종로우수연극전과 연계하여 4편(종로 픽)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기간에 발표되는 작품을 추천을 통해 선정(종로구청에서 직접 지원)

5) 지원가능작품

- 문화다양성(종로지역문화, 소수문화, 비주류문화)가치를 보여주는 작품
- 종로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작품
- 11월 중 공연 가능한 연극 단체의 신작 및 재공연작
-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은 작품

6) 주최|종로문화재단

후원|종로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나. 종로문화다양성 연극제 추진

1) 사업운영일정

기간	내용	비고
2월~3월	기본계획수립 및 점검	
3월	종로문화다양성 운영위원회 구성	기획회의 등 운영
3월~4월	종로 문화다양성 연극제 기본계획 수립	
5월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운영	
6월~7월	종로문화다양성 연극제 운영 준비	
8월~9월	문화다양성영화제 및 워크숍 운영 준비	협력-에무시네마
9월~10월	연극제 참가단체 공모 및 최종 선정	
10월	예술가를 위한 문화다양성 워크숍 운영 연극제 홍보 및 마케팅 작업 준비	
10월~11월	종로문화다양성 연극제 운영팀 구성 및 세부업무 진행 문화다양성영화제 운영 종로문화다양성 연극제 운영	
12월	종로문화다양성 연극제 평가회 운영	

2)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사업 운영

- 문화다양성 전문가와 홍보 기획회의 정기 운영
- 포털매체, 종로웹진, 유튜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홍보콘텐츠 생산 및 유통
- 대중매체 활용한 홍보 프로그램 운영

- 3) 종로문화다양성 연극제 운영 평가회 운영 : 12월 초순 예정
 - 연극제 평가회 운영
 - 종로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및 참가팀, 일반관객 등 참여
 - 우수작발표(우수작1편 상패수여)
- 4)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12월 31일 사업종료

3. 대중매체 연계 확산사업 『종로문화다양성』

가. 종로문화다양성플랫폼 운영

- 1) 문화다양성을 소재로 매월 홍보콘텐츠 발굴-재단웹진 외
- 2) 대중매체 플랫폼 활용 계획 수립(신문매체 활용)

나. 문화다양성영화제 개요

- 1) 추진일정 : 2019년 11월
- 2) 개최장소 : 에무시네마
- 3) 작품선정 : 다양한 주제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담은 작품
 - 한국영화 기획전(벌새, 메기, 하트, 김군 등 6작품)
 - 북한소재영화 기획전(러행, 뷰티풀 데이즈, 런희와 연희 등 10작품)
 - 종로문화재단, 이은경(평론가), 협력단체 에무시네마 프로그래머와 운영회의를 통해 일정 및 세부운영 확정
- 4) 주최|종로문화재단
협력|복합문화공간 에무

4. 홍보계획

가. 미디어 연계 홍보사업 운영

- 1) 공연실황 등 중계(네이버문화재단 연계)
- 2) 문화다양성연극제 홍보(다양한 매체 연계)
- 3) 종로문화다양성 문화사업 발굴 미디어를 통해 관련 콘텐츠 게재 및 배포

나. 연재기사 배포

- 1) 종로문화재단 웹진, 종로구 홍보통 활용
- 2) 미디어매체 연계(네이버 공연중계, 오마이뉴스연재 등)
- 3) 월간 한국연극 기사 게재
 - 문화다양성 연극 선정하여 기사 게재

VII. 2018년 무지개다리 사업 실적

1.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운영

가. 종로문화다양성 연극제 개요

운영일정	2018.10.12.금~11.18.일
참여극단	[기획]에이치프로젝트 극단 명작옥수수밭 글과 무대 [초대]코끼리만보 아이들극장 퍼포먼스온 하땅세
운영극장	스튜디오76 예술공간 서울 아이들극장 눈빛극장 대학로예술극장대극장
주 최	종로문화재단 (사)한국연극협회
협 력	월간한국연극 복합문화공간 에무
기 획	아츠온
홍보마케팅	피알엠 쇼닥터 문화감성아츠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종로구

나.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추진위원회

- 1) 예술감독 정대경(연출가)
- 2) 사업컨설턴트 이은경(월간 한국연극 편집부주간)
- 3) 운영위원
 - 김미혜(평론가)
 - 김인준(국민대학교 연극영화과)
 - 배인석(문화기획자)
 - 송경희(무지개다리사업 컨설턴트)
 - 안경모(연출가)

다.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운영

- 1) 선정과정
 - 2018.6 사업설명회 및 문화다양성워크숍 운영
 - 2018.7 사업참가단체 선정
 - 2018.8 사업참가단체 대상 문화다양성워크숍 운영
 - 2018.11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운영

2018.6.28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사업설명회 / 문화다양성워크숍

대학로 좋은 공연안내센터
다목적홀



2018.8.21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선정극단 문화다양성워크숍

부암동 무계원



2018.10.12.~11.18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운영 / 참여극단 합평회 운영

대학로 일대



2) 기획공연 무지개초이스 선정작품

-전시조종사(에이치프로젝트)

-외톨이들(명작옥수수밭)

-우리는 처음 만났거나 너무 오래 만났다(글과 무대)

전시조종사 에이치프로젝트 | 10.31.수~11.4.일

스튜디오76



이 작품은 자본주의·전쟁·테러·입양·장애 등을 소재로, 인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여섯 다리만 건너면 지구 위에 사는 사람들 모두 아는 사이'(Six Degrees of Separation)라는 서양 속담처럼 전 세계의 인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 아니라' '나만'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에 차이를 차별·혐오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진다. 문화다양성의 중요한 가치는 '조화로움 공존'이다. 인간은 모두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면 공존의 당위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모자관계인 노인과 한천수의 이야기, 아메드 일가의 이야기, 이들을 하나로 묶는 전시조종사의 이야기가 씨줄과 날줄처럼 얹히면서 등장인물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사건의 전개도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시공간이 다르고, 이질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각각의 분절된 에피소드들은 음향·대사·인물·상황의 유사성으로 인해 장면과 장면이 자연스럽게 오버랩 된다.

주제를 상징하는 인물은 제목처럼 전시조종사이다. 조종사를 중심으로 등장인물 모두 혈연과 상황에 의해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는 어릴 때 해외로 입양되어 '행상'이란 이름으로 살았지만 실제로는 노인의 손자이자 한천수의 아들이다. 이들 가족은 업보로 인해 척추장애가 유전되었기에 시각적으로도 선명하게 관계가 드러난다. 연합국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적군에 붙잡힌 포로지만 자신을 심문하는 아메드의 요청으로 그의 임신한 아내를 제3국으로 보내주는 협력자이다. "등이 이렇게 나온 것들은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기 좋습니다."라며 낮은 사막에 남는다. 그는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으며 영원한 평화를 지향하는, 칸트가 말한 '세계시민'이다.

제작 에이치프로젝트 | 예술감독 김도훈 작·연출 한윤선 출연진 이태훈, 장기용, 김희정, 윤홍식, 김권, 전지혜, 권세봉, 태준호, 이광현, 이관욱, 유승철, 김효신, 양소영
스테프 음악감독 남기호 조명감독 이금철 조연출 이원석 진행 강찬정

외톨이들 극단 명작옥수수밭 | 11.7.수~11.11.일

스튜디오76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제목처럼 외로운 사람들이다. 아버지의 부재로 고아처럼 살고 있는 기쁨, 별거 중인 부모의 무관심에 가출해서 기쁨이네 집에 더부살이하는 소라, 학교에서 왕따인 지호, 다문화가정의 이슬 등 해체된 가족 때문에 고통 받는 고등학생들이 등장한다. 어른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헤비메탈 밴드 연주자에서 거리로 나앉은 노숙자, 성소수자로 가정에 적응 못하는 기쁨 아버지 등 사회적 타자들이다. 해체되어 외로운 가족, 불우한 청소년의 현실이 사실적으로 재연된다. 하지만 유머와 휴머니즘을 바탕에 두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밝고 유쾌하다.

이 작품은 청소년에 대한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청소년이 주인공인 대부분의 작품에서 이들은 계몽의 대상, 아니면 구원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청소년은 정신과 행동에서 미숙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작품의 청소년은 주체적 존재이다. 욕설을 입에 달고, 가볍게 행동하는 철부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진지하고 성숙한 모습도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청소년들은 남루한 현실에도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진취적인 인물이다. 어른들의 삶까지 변화시킬 만큼 선의(善意)로 충만하다. 기쁨과 소라는 UCC공모에서 수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민지와 이슬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를 생각하며 힘든 아르바이트에 전념한다. 옥상에 올라간 지호와 노숙자를 보고 자살하려는 것으로 오해해 벌어지는 소동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진심이 밝혀진다. 외톨이들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는 결말을 통해 함께 하는 미래를 제시한다.

제작 명작옥수수밭 | 작·연출 최원중, 이시원 출연진 강연호, 김동현, 김결, 전소영, 김설빈, 최은경, 배소현, 정아람, 박현수
스테프 무대디자인 이창원 조명디자인 배대두 영상 조수지 조연출 박석원, 이창민 소품 서상원 기술오피 박석원, 이창민, 조수지 포스터그림 여기

우리는 처음 만났거나 너무 오래 만났다 글과무대

11.14.수~11.18.일
스튜디오76



이 작품은 여성의 관계를 세심하게 그린 2인극 4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었다. 4명의 여성작가와 여성연출가가 뜻을 합쳐 출발한 극단단체 여성문제에 집중한다. 사돈, 동성연인, 자매와 모녀, 배우와 팬처럼 독특한 관계에 주목한다. 단일 에피소드의 단막극들이라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성찰하지는 못하지만 여성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운전하기 좋은 날〉은 안사돈이란 어려운 관계에 주목한다. 이혼하겠다는 자녀들의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부산 자식집을 찾아가는 자동차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자식의 이혼이라는 갈등적 상황 속에서도 여성으로서 연대감을 느끼는 이들의 관계변화가 유머러스하게 그려진다. 〈이사〉는 결혼을 앞두고 이삿짐을 싸는 레즈비언 커플의 이별과정을 그린다.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된 현실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별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 역시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코디네이터〉는 옷 정리 하면서 갈등을 빚는 쌍둥이 자매의 일상적인 해프닝을 통해 자매관계와 모녀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어머니의 연애에 대해서는 딸들의 반응을 통해 가장 가까우면서도 속마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관계의 모호함이 흥미롭게 그려진다. 〈팬미팅〉은 스캔들이 많았던 유명 여배우와 그녀의 소신에 매료된 여성팬이 우연하게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만나 벌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논쟁을 그린다. 논쟁의 과정에서 이들은 삶의 진실을 깨닫고 스스로 주체적 선택을 한다. 우연을 필연으로 만든 이들의 심리변화가 이 작품의 핵심이다.

제작 글과 무대

작 김윤영, 진주, 최보영, 황정은 연출 이인수 출연진 김은숙, 윤진성, 윤형경, 홍혜련
스태프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이경은 작곡 이음향감독 이은호 조연출 영이

3) 초대공연 무지개픽 선정작품

<p>애들러와 깁 (코끼리만보) 10.12.금~10.28.일 예술공간서울 연출 손원정</p>		<p>엄마 이야기 (아이들극장) 10.19.금~10.27.토 아이들극장 연출 한태숙</p>	
<p>일루전 (퍼포먼스온) 10.26.금~11.4.일 눈빛극장 연출 남상식</p>		<p>그때, 변홍례 (하땅세) 11.1.목~11.4.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연출 윤시중</p>	

2. 종로문화다양성플랫폼 운영

1)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을 위한 웹레터 연재(월간 한국연극 동시 게재)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존에 발표되었던 연극공연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홍보콘텐츠 배포

- 차이를 인정하라
- 차별의 중심에는 ‘어른’이 있다
- 남과 다를 권리를 부정하는 사회
- 문화다양성을 위한 연대의식
- ‘다른’문화적 삶의 방식에 대한 인정과 존중
- 노년의 현실과 역할 기대치 사이의 간극
- 분노를 넘어선 인간존중의 가치
- 톨레랑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 ‘생각’이 필요하다

2) 문화다양성 영화의 날 콘텐츠 웹전단 배포

-경희궁길 에무시네마와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영화의 날 1/2

3. 종로문화다양성+

1) 문화다양성 영화의 날 운영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를 협력으로 운영한 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다양성 영화의 날로 지정하고 총7편의 다양성영화상영,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손지현 프로듀서와 함께 이브닝토크 운영

종로문화다양성 플랫폼

무지개 다리 사업 × 문화다양성 주간

차이를 즐기자

- 영화로 문화다양성 읽기 -

Wonder 특별상영

종로문화재단 × 한국연극협회 × 에무시네마 × 월간한국연극

종로문화재단(이하 종로문화재단)은 종로문화재단 × 한국연극협회가 함께 2018년 11월에 대치로에서 개최하며, 자세한 운영계획은 2018년 6월 한국연극협회와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8. 5. 21. 월요일 **Wonder**

특별상영 에무시네마(북한문학회관 2층)

• 오후 7:00~ 영화 원더 특별상영 • 오후 9:00~ 이브닝토크

진행 이은경 (한국영화가, 월간한국연극 편집부주최) | 손지현 (에무시네마 프로듀서)

문의 에무시네마 02-730-5604 | 종로문화재단 02-6203-1157

예매 인터파크 movie.interpark.com | yes24 movie.yes24.com | 네이버 movie.naver.com

- 에무시네마 통해 예약은 관객당 1인당 1회로, 종로문화재단에 예약하면 2인 이상 예약하면 1인당 1회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한 관객으로 인해 사전예약인원 제한 관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브닝토크에는 역량이 다가가 참여하여 있습니다.


주관: (재)종로문화재단 (사)한국연극협회 | 후원: 월간한국연극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후원: 한국문화재단 | 후원: 종로구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를 기점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다양성 영화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다양성영화상영을 1편 상영하고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이브닝토크 운영

협력 : 에무시네마

참여인원 : 269명(총7회 운영)


※에무시네마 집객으로 문화다양성 영화의 날이 운영된 1관은 51석 규모임




문화다양성 영화의날
X
경희궁길 에무시네마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다양성 영화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성영화 상영 및 이브닝토크 운영


-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 하나 그리고 둘
- 어느 가족
- 죄 많은 소녀
-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 페르세폴리스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하나 그리고 둘




어느 가족



죄 많은 소녀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페르세폴리스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영화의 날’

이은경(연극평론가)

종로문화재단과 에무시네마는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다양성 영화의 날’로 지정하여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담은 영화들을 상영하고, 관객과의 이브닝토크를 진행했다.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원더>로 시작되어 지난 12월에 완료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총 8편의 영화가 소개되었다.

장애를 소재로 차별문제 제기한 가족영화 : <원더>

<원더wonder>는 제목처럼 우리의 삶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족영화다. 선천적 안면기형으로 태어난 소년 어기(제이콥 트램블레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어기는 27번이나 성형수술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얼굴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헬멧으로 얼굴을 감추며 살아온 10살 소년이다. 외부의 시선이 불편해서 홈스쿨링을 받던 어기가 어머니(줄리아 로버츠)의 권유로 학교에 나가면서 겪게 되는 상처와 치유의 과정이 중심사건이다. 얼굴은 인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평범’의 기준도 절대적이지 않은데 어기는 단지 얼굴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친구들에게 차별의 대상이 된다. 등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의 악동들에게 왕따와 폭력의 대상이 된다. 좌절한 어기는 세상으로 나아간 것을 후회하고, 포기하려 한다. 하지만 긍정적 마인드와 가족의 사랑, 선생님들의 배려, 친구들과의 우정으로 인해 끝까지 용기를 낸다. 1년 후, 어기는 졸업식에서 ‘강한 힘으로 친구들에게 용기를 준 학생’으로 추천되어 영광의 ‘헨리 워드 비처 메달’을 수상한다.

사람들의 편견을 피해 세상과 격리되어 살고 있는 어기뿐만 아니라 누나 비아(이자벨라 비도빅), 친구 잭(노아 주프), 누나친구 미란다(다니엘 로즈 러셀)의 시선을 균형 있게 배치해서 그들 역시 조연이 아닌 각자 삶의 주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돋보이는 서사 구성으로 인해 기존의 장애인 소재 영화와 달리 가족이나 지인들의 고통과 성장까지 설득력 있게 그린다.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한 번쯤은 박수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두에게 친절하라’는 어기의 마지막 독백에서 영화의 주제의식이 잘 드러난다. 동화와 같은 해피엔딩이라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않지만 세상에 맞선 어린 소년의 용기와 이를 격려하는 주변인들의 배려가 이루어낸 커다란 변화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원더>가 강조하듯 차이를 인정하고, 힘든 모두에게 친절할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문화다양성의 핵심이기도 하다.

사진벽화를 소재로 세대소통을 그린 다큐멘터리 :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누벨바그 영화감독으로 현재도 현역인 88세의 아네스 바르다와 건물 외벽에 인물 흑백사진을 붙이는 33세의 사진작가 JR은 상대방의 예술작업에 매료된다. 의기투합한 이들은 55세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포토트럭을 타고 프랑스 구석구석을 여행한다. 즉흥적으로 머문 낯선 곳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곧 철거될 광산촌에 혼자 남은 자닌, 극적인 연애사의 주인공인 증조모와 증조부, 엄마이지만 여전히 소녀 같은 카페 여직원 나탈리, 염소의 뿔을 자르지 않고 전통방식의 유제품을 만드는 농장주 등의 개인사가 전개된다. 바르다의 말처럼 모두의 얼굴에는 각자의 사연이 담겨 있다. 즉석에서 찍은 사진과 바르다가 자신의 낡은 앨범에서 찾아낸 사진들로 벽화가 완성된다. 벽화 속에서 근무시간이 달라서 만나기 어려웠던 공장노동자들은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누고,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향만노동자 아내들에게는 당당한 위치가 부여된다. 두 사람의 작업으로 일상의 공간은 과거의 시간을 현재로 소환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주목하는 예술적 공간이 된다. 세대를 뛰어넘은 바르다와 JR처럼 벽화 속의 인물들도 예술로 소통한다.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Faces Places>은 엄청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예술세계를 존중하며 벽화를 완성해가는 두 사람의 협업 과정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들은 ‘폴레랑스’를 실천한다. ‘폴레랑스’는 흔히 관용으로 번역되는데,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신조와는 다른 타인의 사상, 신조나 행동을 허용하고, 또한 자기의 사상이나 신조를 외적인 힘을 이용해서 강제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여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사소한 것으로 갈등하기도 하지만 이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필요 과정으로 결국 대립이 아니라 화해에 이른다. 독창적인 머리염색에서 드러나는 바르다의 개성, 결코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 JR의 고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이들의 벽화가 소통의 매개가 되는지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삶의 진실에 관한 철학적 성찰 : <하나 그리고 둘>

대만 뉴 웨이브 시네마를 이끈 에드워드 양 감독은 일상의 미시서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탐구한다. 그의 대표작이자 유작인 <하나 그리고 둘 A One And A Two>도 그의 예술관을 그대로 보여준다. 영화는 NJ(오념진)의 처남 아디(진희성)의 결혼식으로 시작하여 장모님의 장례식으로 마무리된다. 결혼식에서 NJ의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사건(인물)을 만나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 은폐되었던 내면의 욕망, 두려움, 이기심, 허세 등이 드러나면서 평안해보였던 삶이 흔들린다. 사소한 우연이 삶의 균열을 일으키며 필연이 되어가는 과정을 세심하게 보여준다.

영화는 아버지 NJ, 큰딸 텅팅(켈리 리), 작은아들 양양(조나단 창)의 엇갈린 사랑과 이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아동·청소년·성인의 개별적 사랑처럼 보이지만 교차편집으로 인해 인생의 통과의례인 사랑의 의미를 관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죽음과 어머니(금연령)의 불안함을 통해 죽음의 의미까지 성찰하게 된다. 이처럼 이 영화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인 사랑과 죽음을 한 가족의 일상을 통해 세밀하게 그리면서 관객에게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특히 어린 양양이 사람들 뒷모습에 관심을 갖는 행위를 통해 ‘보지 못하는 삶’까지 환기시킨다. 그는 ‘우리가 앞을 볼 수 있지만 뒤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진실만 본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카메라로 사람들의 뒷모습을 찍기 시작한다. 가족들은 이해 못하지만 양양의 사진찍기는 인간을 편견

없이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규정한다. 실제적 진실을 알리고 하지 않는 외눈박이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진실을 호도하기도 한다. 삶의 일면만을 보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자신만이 옳다고 확신하여 자신과 다르면 차별하고, 혐오한다. 그렇기에 외할머니의 장례식에서 “남이 모르는 일을 알려주고, 못 보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라는 양양의 고백이 더 의미심장하다.

외에도 매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환기시키는 영화들이 지속적으로 상영되었다. 8월의 영화 <어느 가족>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는 유사가족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성찰케 한다. 등장인물 모두 내면의 트라우마와 결핍을 가지고 있다. 가족 모두 일용직 노동자로 열심히 일하고, 할머니의 연금까지 더하지만 생계가 어려워 도둑질까지 한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식구는 선택할 수 있다’는 대사에 함축되듯이 도둑질, 성매매,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9월의 영화 <죄 많은 소녀>(김의석 감독)는 ‘죄 없는 소녀’가 어떻게 주변인들에 의해서 ‘죄 많은 소녀’가 되어 가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친구를 죽게 했다고 의심받는 여고생 영희(전여빈)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형사, 선생, 친구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오히려 소녀의 죽음에 자신들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이기심에 영희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소문이 점차 진실로 호도되는 과정에서 자행되는 집단폭력은 폴레랑스의 부재가 초래한 비극임을 깨닫게 된다.


10월의 영화 <군산 : 거위를 노래하다>(장률 감독)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윤영(박해일)과 송현(문소리)이 우연히 군산여행을 함께 하면서 겪게 되는 소소한 일상을 그린 작품이다. 두 인물 간 엇갈린 사랑의 감정을 세밀하게 포착하면서도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차별을 환기시킨다. 민박집 사장은 재일동포이고, 윤영네 파출부는 조선족이며, 윤영과 송현이 우연하게 만나는 곳은 재외동포법 관련 시위 중인 조선족 무리 속이다.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문제를 제기한 것은 조선족이라는 감독의 출생과도 연관이 있을 듯하다.

11월의 영화 <페르세폴리스 Persepolis>(마르얀 사트라피·뱅상 파로노드 감독)는 마르얀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흑백 애니메이션영화다. 자유를 갈구하는 소녀 마르잔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혁명과 전쟁으로 점철된 이란의 근현대사를 보여준다. 제국주의, 독재, 종교 근본주의, 가부장제, 페미니즘 등 역사를 관통하는 사회변화가 개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르잔의 변화를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여성에게 억압적인 이란의 현실에 저항하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르잔의 당당함을 주목하게 한다.

12월의 영화 <인 디 아일 In the Aisles>(토마스 스테버 감독)은 창고식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그린다. 강도질로 감옥을 다녀올 만큼 거친 삶을 살아온 크리스티안(프란츠 로고스키)을 중심으로, 겉으로는 활달하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동료 마리온(산드라 휠러)과 트럭운전수였던 과거를 잊지 못하는 지게차운전수 브루노(피터 쿠스)의 내적 고통과 일상의 고독을 세심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사회적 타자인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서로 간의 관심과 연대라는 점을 강조한다.

2) 늘푸른연극제 연계사업

- 원로연극인들의 연극제 늘푸른 연극제 홍보사업 지원
- 문화다양성 지역 프로그램 연계
- 향후 지역 연극제 등 소규모 축제와 연계 계획 있음



제3회 서울국제영화제
2018.8.17 - 9.16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배우 전무송

소시민의 평범한 이야기와 그들의 고뇌를 표현한 이야기

세일즈맨의 죽음

| 세일즈맨의 죽음

극작가 김영무

이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

장씨 일가

| 장씨일가

배우 권성덕

로마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대제

| 로물루스 대제

연출가 전승환

가슴 따뜻해지는 가족드라마

늙은 자전거

| 늙은 자전거

연출가 강영걸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피고지고 피고지고

| 피고지고 피고지고

배우 오영수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피고지고 피고지고

| 피고지고 피고지고

대학로X늘푸른연극제

푸른 마음 그대로이면
청춘은 늙지 않으려!



- 세일즈맨의 죽음
- 장씨일가
- 로물루스 대제

- 늙은 자전거
- 피고지고 피고지고

4.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운영

-문화다양성주간행사 - 차이를 즐기자





매년 5월 21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문화다양성의 날입니다.
중로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로 경희궁길 에무시네마와 협력하여
영화 '원더' 특별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운영일시 : 2018.5.21.(월), 에무시네마1관

내용 : 영화 '원더' 상영회 및 이브닝토크 운영(협력: 에무시네마)

참여인원 : 관객51명(스텝12명 불포함)

5. 종로무지개다리사업 참여자수

프로그램 추진 전략		프로그램명	협력단체	참여자 수
문화 다양성 기반 구축형	주제 기반	종로문화다양성위원회	2	7명
	협력 기반	문화다양성협력	3	18명
	인력 기반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사업설명회 및 워크숍	2	126명
		종로문화다양성워크숍		23명
문화 다양성 가치 발굴형	소수문화 중점	늘푸른연극제	7	7,418명
	문화교류 중점	문화다양성주간행사	1	51명
		문화다양성 영화의 날	1	350명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형	공유 중점	종로문화다양성플랫폼	3	29,000여명
	컨텐츠 중점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14	6,562명
총 참여자 수				43,555명

VIII.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계획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29.)>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①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2019년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개요(안)>

- 문화다양성의 날 : 2019년 5월 21일(화)
- 문화다양성 주간 : 2019년 5월 21일(화)~5월 27일(월)

1. 개요

가. 행사명, 일시 및 장소

- 1) 행사명: 종로문화다양성 차이를 즐기자(문화다양성으로 영화읽기)
 - 영화 ‘일일시호일’ 특별상영회 및 이브닝토크 진행
- 2) 일시: 2019. 5. 21.(화), 오후 7시~10시
- 3) 장소: 복합문화공간 에무시네마 2층, 1관

나. 취지 및 기대효과

- 1)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 홍보
- 2) 종로문화다양성 연극제 자료 활용
- 3) 지역문화예술단체(에무시네마)와의 협력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다양성 영화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성 영화선정, 특별상영회를 운영하여 문화다
양성의 인식 확산

2. 세부 추진 프로그램

가. 유튜브 게재용 영상물 제작

- 1) 다양성유튜브제작
 - 2018년 원로연극인과 중견, 신세대 연극인들의 문화다양성 토크 프로그램
: 대학로사람들(출연 최종원, 뮤지컬배우 최나래 출연 예정)
- 2) 샘플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배포후 정규프로그램으로 가능성 타진
: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을 위한 대중문화프로그램으로 문화다양성 이해증진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다양성 영화 상영 및 이브닝토크 운영(확정)

- 1) 협력단체 : 경희궁길 에무시네마
- 2) 상영영화선정
 -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운영위원, 사업컨설턴트, 다양성 영화의 날 프로그래
머(손지현)의 협의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영화 선정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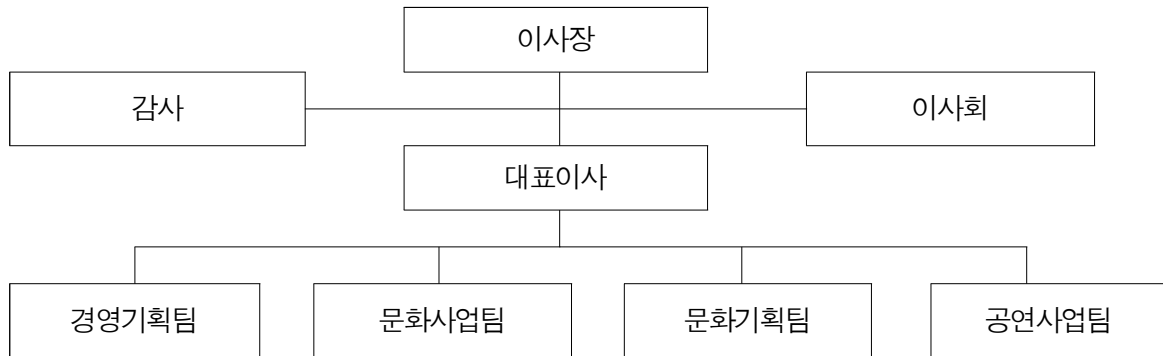
1. 설립목적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교류 사업
- 문화시설(문학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도서관) 운영사업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일반현황

- 설립연도 : 2013.9.17
- 홈페이지 : www.jfac.or.kr

- 조직도



3. 기관의 주요 활동영역

문화시설(미술관, 문학관,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공연장)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기획사업 운영
 -전시, 공연, 강연 등 문화예술일반 기획 프로그램 운영
 -종로한복축제, 윤동주문학제 등 축제사업 운영
 -문화를 매개로 하는 사회공헌사업 운영

4. 주요 사업 관련 실적

연도	사업명 및 주요내용	*해당사항에 체크	
		주관기관	컨소시엄
2014년	다문화사업 '아시아 전래동화 그림속으로 풍~덩'	자체주관	
2015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문화지구사랑방 문.지.방'	자체주관	
2016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침선의 기록, 손의 기억'	자체주관	
2017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종로의 기록, 손의 기억'	자체주관	
2018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자체주관	

5. 기관의 특징 및 장점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를 통한 지역문화예술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사업 기획
 -문화지구(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사업 추진
 -설립이후 도서관·문화시설을 통한 문화사업 외에도 무지개다리사업, 한복축제사업 등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음.